

▶▶ 매일 INDEX



4면

'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출범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음 10월 5일) 제386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21일 새만금 고속도로 김제 휴게소에서 열린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 포항선 새만금-전주 구간 개통식에 김은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 교통 혁신 기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새만금과 전주를 하나로 묶는 길이 열렸다. 전북의 하늘과 땅, 바다를 연결해 도약의 기반을 놓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새만금 개발의 외연 확장과 전북 광역 교통망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이 길은 단순한 도로를 넘어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전북 전역을 연결하는 교통 혁신의 기점이 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김제 진봉)에서 완주 상관까지 연결되는 55.1km 구간으로, 서해안의 관문 새만금과 전북의 중심 전주 간 이동시간이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43분(57%) 단축된다. 주행거리는 기존 62.8km에서 55.1km로 8km가량 줄어들면서 차량 운행 비용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 등 연

김제 진봉서 전주까지 이동시간 30분대로 단축
새만금 활성화·전북 성장동력 강화에 가속도

간 2,018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된다.

해당 고속도로는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2018년 착공해 약 15년 만에 완공된 전북의 핵심 기반사업이다. 사업에는 총 2조7,424억원이 투입됐으며, 전 구간은 4차로로 건설됐다. 분기점 4개소와 나들목 3개소, 휴게소 2개소가 포함돼 주요 고속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익산~장수선

등 기존 고속도로망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며, 전주와 김제, 완주 간 통행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특히 도로 이용 거리가 약 12% 줄어들고, 통행시간은 절반 이상 단축돼 교통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새만금이 내부 개발을 위해 동서도로, 남북도로 등 십자형 내부 도로망 완성에 집중해 온 시기였다면, 이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첫 외연 확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 영호남을 연결하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10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새만금에서 포함까지 이어지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3축 완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개통까지 국가 계획 반영 건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응, 국가예산 확보, 행정절차 이행 지원 등 모든 과정마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개통을 시작

으로 전북 광역권 교통망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등 국가계획 반영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2시 김제휴게소(새만금방향)에서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도로공사, 해당 시군 및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개통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은 전북 도약의 새로운 출발선이자, 변화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계획과 연계해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망을 한층 강화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규모 크게 확대된다

전북인적자원개발위, 내년도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 로드맵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는 지난 21일 '2025년 제5차 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 방향과 핵심 정책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여봉 원장(공공위원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장 등 지자체,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과 2026년도 사업계획(안)을 집중 검토하며,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생명바이오, 미래신산업, 모빌리티, 청년층 등 4개 신규 분과위원회 신설을 발표했다.

2026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훈련 과정은 기존 56개에서 72개로 16개가 늘어나며, 훈련 목표 인원은 1,989명에서 2,219명으로 230명이 증가한다. 이에 따른 공동훈련센터 예산도 약 20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6억 원 증액 편성됐다.

특히 캠퍼스중간기술원의 9개 과정(142명)과 한국폴리텍대 전북캠퍼스 2개 과정(40명) 등 신산업 분야 신규 훈련과정 11개를 신설해 미래 유망산업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 재직자, 고령층 등 계층별 맞춤형 역량 개발 체계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오상근 기자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첫 삽’

전북 서부권 최초 공공 산후 돌봄 시설… 105억3400여만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 서부권 최초의 공공 산후 돌봄 시설이 될 ‘정읍 공공산후조리원’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정읍시는 지난 21일 용계동 353번지 일원 건립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체계적인 치유 공간 조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임소식·염영선 도의원 등 내빈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 주민 대표와 시공사·설계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시작을 축하했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공사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하는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다.

정읍 공공산후조리원은 총사업비 약 105억3,400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35억, 도비 35억, 시비 35억 3400



지난 21일 정읍시 용계동 353번지 일원 건립 부지에서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 착공식이 열렸다. (사진=정읍시청 제공)

만)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시설은 연면적 1,686.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산모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입산부실 10실과 신생아실이 핵심 공간으로 배치된다. 이와 함께 행정실, 상담실,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마사지실, 조리실 등 산모의 빠른 회복과 편의를 돕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시는 2026년 11월까지 준공을 마

친 뒤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거쳐 2027년 1월 정식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핵심 시설”이라며 “이번 건립을 통해 타 지역으로 나가야 했던 원정 출산의 불편을 줄이고, 청년들이 정읍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만금서 핵융합 미래 선도”

전북자치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최종 평가 마쳐

“가장 먼저, 가장 잘 준비된 곳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핵융합의 미래를 반드시 선도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최종 평가를 마쳤다.

23일 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1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발표평가에 직접 PT 발표자로 나서 새만금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정부의 신뢰 이행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강력한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새만금, 나주, 경주 등이 참여한 유치전에서 전북은 18일 현장실사에 이어 이날 최종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전북도-군산시 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16년간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과정을 강조했다.

전북은 2009년 전국 최초로 인공태양 기술 유치 협약을 맺은 이후,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참여한 새만금위원회에서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개소로 협약 1단계를 완료했으며, 같은 해 핵융합 연구단지 기반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7년 새만금 산단 유치업종에 핵융합을 추가하고, 2019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연구에서 새만금 핵융합 연구단지 추진이 제안됐다. 2021년 변경된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 실증연구단지가 반영됐으며, 올해 2월 연구시설용지 10만 평을 확보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최종 후보지를 11월 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핵융합은 수소 1g으로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며, 탄소 배출과 고준위 방폐물 발생이 없고 폭발 위험도 없어 차세대 청정에너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

안전한 가스보일러 사용을 위해 가스 체크! 행복 체크!



일산화탄소 경보기

배우 이아영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 요령!



배기통 이탈, 피그러짐 확인



보일러 사용전, 정기점검 확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확인

*가스보일러는 1년에 1회 이상, 가스공급자 또는 보일러제조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통상부



한국가스안전공사